

순정이

부활 제6주일

제1독서 : 사도 8, 5-8, 14-17

제2독서 : I 베드 3, 15-18

복음 : 요한 14, 15-21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한 14, 21)

강론

소리

사랑이라는 계명

김 선태 신부 / 둔율동 보좌

인류는 역사상 사랑이란 단어만큼 많이 말해진 단어도 드문 것 같다. 문학이나 노래, 영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이 언급되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만큼 실천되지 않는 듯하다.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깊이 사색하지 않고 또 노력하지 않는 까닭이리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랑은 하느님의 궁극적인 계시이다. 즉 하느님이 자기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세상에 파견되어 오시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 하느님을 드러냈던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요한 13, 34 ; 15, 17)는 세계명의 실천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사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고 (요한 1서 4, 16) 세상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인가? 요한에 의하면 사랑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행위(13, 14)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15, 13)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바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찌되든 맡든 상관없이 벗을 위해 발을 씻어주고,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바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남이 어찌되든 맡든 상관없이 자신의 안전만을 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라면 남의 생명까지 요구하는 이기심과는 정반대이다. 따라서 하느님은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하는 이기심에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헌신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오늘복음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사회의 때묻은 발을 씻어 주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앙인 각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씻어 주어야 할 벗의 발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현실에서 교회와 우리가 씻어 주어야만 하는 그 발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자못 중요하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몸소 가난한 자의 발을 찾아 씻어 주시는 사랑을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다는 점에서, 씻겨주어야 할 발을 능동적으로 찾지 않는 신앙인은 현실안주와 자기안보라는 이기심을 가졌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듯 싶다.

삶은 빛, 아픈 소금

이땅의 '삶'은 고뇌와 다름아니다. 지금껏 정의를 위하여 희생된 꽃다운 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오월이 오면 우리의 가슴 한쪽이 피와 눈물로 젖어 아프다. 가장 좋아 성모님께 봉헌된 계절이 고통스런 날들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역사 속의 존재임을 다시 깨우쳐 준다.

사건과 일의 본질이 왜곡되고, 양심이 악의 무리에 짓밟히고, 억울한 사람이 자꾸만 늘어갈 때 그 사회의 가는 곳은 어디일 것인가? 그 사회를 바로잡아줄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의로운 예언자 세례자 요한이 목이 잘렸는데 그로부터 2천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은 더 공공연한 불의의 세상이 된 것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는가?

폭력을 모든일의 해결법으로 믿는 일이 지금 우리 사회의 암의 씨앗이 되고 있다. 폭력이 의를 짓밟으면 의의 실체는 죽는 듯해도 다시 돌아오르는 법이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부활해가는 것이 진리이다.

크리스찬의 폭력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문제이므로 교도권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옳은 길이다. 다만 조직화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공권력 아래 인간의 기본적 존엄함마저 무시되는 상황을 대하는 방식은 고려돼야 한다.

이 오월이 상처입은 채 끝나더라도 쉽게 대강 덮어둘 일은 아니다.

가톨릭 재단 학교인 해성고등학교 학생 한명이 경찰에 폭행을 당해 3주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어 입원중이어서 폭력은 우리가 가까이 어디에나 포진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빛과 소금은 어둠과 부패에게는 싫고 아픈 것이겠지만 이땅의 복음은 늘 '빛과 소금'으로 비유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어떤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지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선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예리하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환경의 회복에 기여하여야 할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남녀들은, 그래서 세계 안에는 명확한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피조물 안에서의 자기 책임은 물론 자연과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마치며, 저는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여야 할 중대한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하여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저의 형제 자매들에게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건강한 환경을 보존하려는 신앙인들의 투신은 창조주 하느님께

대항 신앙에서 직접 뻗어 나오는 것이며, 원죄와 본죄의 결과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으로부터 직접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또한 인간과 더불어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부름받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시편 148 ; 96참조)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6세>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각자 숙고해 볼 일이다. 우선 이에 대한 지침을 매주 숲정이 교구소식 하단에 마련하였으니 신앙 행위로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의 환경 공해는 곧 우리 세대가 저지른 우리의 죄악이니만큼 우리세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만년 금수강산을 망친 장본인으로 하느님 앞에 그리고 민족의 역사 앞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미사해설 10

강론 없는 미사?

지난 주에는 ‘제대의 의미’를 알아 보았다. 오늘은 강론대와 독서대의 의미를 알아 본다.

미사는 두 가지를 함께 기념하는 의식이다. 하느님의 말씀-말씀의 전례-과, 성찬-성찬의 전례-이 똑같은 비중을 갖고 기억된다. 말씀의 전례가 성찬의 전례의 부속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말씀 없는 성찬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성찬식이 거행되는 제대만큼 말씀이 선포되는 독서대와 강론대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다. 성찬식에 과분히 말씀의 전례가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회의 이 뜻은 성당 구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오래된 성당일 수록 제대 못지않게 화려하고 장엄하게 강론대가 꾸며져 있다. 음향기기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대보다 훨씬 높고 중요한 곳에 천개(天蓋)로 덮은 강론대가 있었다. 말씀으로 준비된 성찬이 아니라면 그 성찬은 의미가 없다. 미사경문은 결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키는 주문(呪文)이나 주술

(呪術)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었음을 듣고 보고 맛보는 신앙 행위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닌 행위인가를 명확히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감동적인 강론은 감동적인 성찬을 가능케 한다. 맥 빠진 말씀에 힘있는 성찬을 기대하기 어렵다.

독서자도 강론자도 존경받는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서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강론자나 독서자의 부주의와 불성실로 하느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맥빠진 말씀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열성이 요구된다. 천주교회는 ‘성찬’ 중심이고 개신교는 ‘말씀’이 중심이라는 의식(意識)은 잘못된 인식이다. 성찬없는 예식이 허전하듯 강론 없는 미사 역시 그 생명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성찬이 거행되는 제대 못지않게 말씀이 선포되는 강론대와 독서대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강론대와 독서대를 제대의 부속물로 여겨서는 안된다.

기름·연탄·가스보일러
판매·시공·상담

남양열기사

박 대건 안드레아
전 레지나

☎ 4-0006

전주시 서노송동 흥국생명빌딩

샤넬안경원

품질·가격·봉사

이 순 구 (도미니코)

정 병 채 (실비어)

이리시 중앙동 1가 13-10

☎ 54-9525

훈수전문·커튼·약혼복

서울주단

김 완 준 (안토니오)

박 운 화 (베로니카)

중앙성당 정문앞

☎ 3-0453, 77-5095

우리전통

박 성 환 (즈기리나)

김 명 숙 (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성당 앞)

☎ 85-8848

잠깐!

떠나시는 신부님께!

신부님. 지난주일 "빛을 다 갠으셨다"고 우리를 앞에서 홀가분하게 말씀 하시더니 정말 서둘러 급하게도 가시게 되셨군요.

우리들은 신부님들께서 떠나실 때마다 겪는 서운함을, 신부님께선 아실런지요. 특히 영세주신 신부님을 생각할 때면 아련히 가슴이 저러오는 그리움 같은 건 진짜 모르는 것 같더군요. 우리들은 몇날 밤잠을 설치다 신부님을 보내드리면서 눈물짓던 그 정으로 어디서 만나면 반가워 다가서기라도 하면 언제 내걸을 스쳤나는듯이 안부 한마디 안물으시고 혹시나 면발치서 시선이라도 마주 치기를 바라고 신부님을 찾아보면 행여나 무슨 불똥이라도 튀어 다치실까 그러시는지 외면 하시기엔 선 수이십니다.

"우리는 신자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하시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저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을 위해서"입니다. 신부님을 하늘같이 생각하는 할머니들의 정성을 흉중에 담고 계 시는지요. 이 세상에 제일은 '사랑'이시라면서 혹시 농담이라도 우리 성당에 새로오신 수녀님께 웬수같은 원평신자들이라고 이를 악물고 말씀하시진 않으실런지요. 또 우리들이 어려운 일이 생겨 신부님 계신 성당에 가서 불똥없는 미사포 주머니를 팔겠다고 하면, "우리성당 짓는데도 험잡다" 하시며 퍼 보지도 못하고 되돌아서게는 않으시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변함없이 "가장 보잘것 없는 이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는 예수님 말씀과 헤어짐을 아쉬워 하는 우리들에게 "다음에 오시는 신부님께 잘해드리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던 신부님의 말씀을 또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1990 5. 11. 원평성당 이 세시리아 드림

교구 소식

※ 축! 견진: 삼례 천주교회 5월 27일 오전10시 공식미사

1. 혼인강좌: 일시 5월 27일(오전 9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2. 문규현 신부님 면회의 날: 매주 화요일(연락처-평화동 성당 박병준 신부)
3. 5월중 은혜의 밤 기도회: 25일(금) 오후11시 장소-전동성당
4. 신부님 출국 및 주소, 전화안내: 김환철 신부-5월21일(월) 출국 교구인사 발령으로 안식년 휴가를 이용 필리핀 교포사목을 위해 출국하십니다. 현유복 신부-5월 10일 미국 아틀란타로 교목사목위해 출국 박기준 신부-5월 1일 로마로 유학차 출국 경규봉 신부-전화번호 변경 (필리핀 810-5782 FAX(63-2)741-7961)

주소: 현 유복 신부

Rev. Hyeon Benedict
The Korean Catholic Center
837 North Indian Creek Drive
Clarkston GA 30021
U. S. A
Tel 404-292-6321

한 정 현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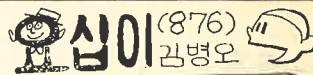
Rev. Augustin HAN
Missionnaires de Beth'een
Chemin Abb'e freely 18 Torri
1700 fribourg
SWITZERLAND

5. 전화번호 변경: 덕진성당 사무실-3국이 252-2182로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합성세제(삼푸, 주방용 합성세제)는 수질 오염의 주범

합성세제의 주성분인 인산염 등은 분해되지 않으며 물을 오염시켜 위장장애 등을 일으킵니다. 합성세제의 사용과 선물보다는 쌀뜨물, 뜨거운 물, 비누, 밀가루 등을 사용합니다.



심이 (876) 김병오

왜 똥들이 자기들의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겠다고 하나...

어떻게 하면 좋겠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게 뭐요?

사람을 무자비하게 잘뜨끼는 백골단들

일본에 보내서 혼을 내줍시다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회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 2-8653

연지·곤지·웨딩드레스

약혼복·무대복·마춤대어
비디오·아이스탑촬영
신부회장

유순례 (가티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 82-2347

8차 성지 순례단출발
6. 26~7. 13일 (17박 18일)
비엔나·베니스·이제시·로마·바티칸
이스라엘·이집트·스위스·루르드·파리

전일해외여행사

☎ 6-6666 ~ 8
조 선 (안토니오)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꽃집

이마리아
범디또

☎ 84-2628

(주) 거북표싱크
전북 대리점

각종주방기구 전문제작메이커
대표 정성배 (간자문)
중앙성당 위-버스승강장 앞

매장 4-0210
자택 74-8647

자동차의 각종특수 장치 및
자동차 살림에
필요한 국내의 유명한
자동차 레저 상품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하시라도 문의, 연락을 바랍니다.

다이한 플래닝
김무 (도미나고)
☎ 77-7478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 예수 승천합동(본당, 공소)미사: 27일 10시30분 덕진동물원 성당으로 9시까지 집결(운동복차림) 5개공소는 8시30분까지 각 공소앞으로.
 - 소록도방문(L, M): 21일 6시30분 출발 회비 20,000원.
 - 첫영성체 대상자 접수(3학년이상): 29일까지 원서 제출 바람.
 - 형제들의 소록도 방문 접수: 6월10일 예정 회비20,000원(L, M)단원주관. 5. L, M 별로 기념사진 촬영: 22일~23일, 주일팀 결석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노송신협관광교육: 27일 6시30분출발 매물도.
 - 성령기도회미사: 24일 저녁7시30분(봉헌준비하세요.)
 - 유아세례: 26일 2시30분 대부모 선정하여 문서접수 하세요.
 - 모임: 빈첸시오-25일 오전9시30분.
- ☐ 지난주 봉헌금: 877,750원 ☐ 교무금: 398,00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병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균
수녀원 86-3454

- 환영: 김병환(사도요한) 본당 신부님 집심으로 환영 합니다. 환영식-오늘 공식미사후.
 -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후. 3. 요셉회: 오늘 공식미사후.
 - 빈첸시오회: 24일 오전10시. 5. 병자: 봉성제 25일 오후2시.
 - 유아세례: 26일 오후7시. 7. 삼회: 27일 오후2시.
 - 회장단회: 27일 저녁미사후. 9. 레지오마리에 옥외행사: 29일
 - 건전: 6월17일 건전 안반오신분들은 27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금주전례: 해설-정승훈 ①오상환 ②최경춘
봉헌-오상환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황만갑 ①신일균 ②윤귀자
봉헌-신일균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521,360원 ☐ 교무금: 485,7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 양심수를 위한 2차헌금: 오늘 미사중.
 - 성가정회, 청년회: 공식미사후.
 - 예수 승천 야외미사: 다음주 어린이, 학생미사 없음. 4. 제대회: 다음주
 - 성경읽기: 사무엘 상1장~10장.
 - 성모의 밤: 31일(목) 저녁8시. 7. 주일학교 소품: 남관. 8. 레지오: 오후2시, 전통성당.
 - 금주전례: 해설-김경재 독서①김봉길 ②구영순
봉헌-강문옥, 김중석씨 부부
차주해설: 이승복 독서①양대환 ②강희옥
봉헌-정한모, 이충열씨 부부
 - 감사: 바자회 기간중 봉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 ☐ 지난주 봉헌금: 224,000원 ☐ 교무금: 97,000원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명웅
수녀원 84-2276

- ※ 오월은 성모성월입니다.
- 회의: ①성모회-오늘공식미사후. ②푸리아-다음주일 오후2시.
 - 알림: ①가정방문-5월23일(수)10반. ②성모의 밤 행사-5월 26일(토)제1부-미사 저녁7시 제2부-성모의 밤 행사. ③성가 연습-화, 수, 목, 금, 토 오전10시30분. ④봉성제-5월22일(화). ⑤중·고등부학생미사와 화합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⑥경도잔치-6월3일 공식미사후 60세이상 되시는 분 건원 참석. ⑦예비자 교리-6월10일부터 교리시작 (성인반)공식미사후, (학생반)매주 일 오전9시 30분.
- ☐ 지난주 봉헌금: 413,160원 ☐ 교무금: 522,500원

*용머리

사무실 87-011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111 사목회장 오직환

- ※ 예비자 교리 안내: 주부반-금요일 10시 미사후, 직장인반-금요일 저녁8시, 중·고학생반-토요일 5시
- 베로니카회: 공식미사후.
 - 사라회: 공식미사후.
 - 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 성모의 밤 행사: 진신자 기도본·봉헌준비(5월31일 저녁미사).
 - 청소봉사: 서완산동1가 동편
- 사제관·수녀원 신축 헌금 신입총액: 21,674,000원 입금: 10,530,000원
- ☐ 지난주 봉헌금: 381,020원 ☐ 교무금: 303,000원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종충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 성전보수헌금 바람.
- 중·고학생회 성지순례: 오늘8시30분 출발(광주 가톨릭대학 외). 2. 레지오: 오늘 오후3시. 3. 가정방문: 22일-동교동7만. 23일-동교동8만. 24일-풍남동7만. 서교동4만. 25일-전동1, 2만. 4. 영성체 안내: *김중교리-21(월)~25(금) 저녁미사후. *영성식-26일(토) 오후3시30분.
 - 올드레아, 푸리아: 다음주. 6. 윤보두네 신부님 선종75주기 추모미사-29일(화) 저녁7시30분미사.
- * 금주보수비 신입액: 없음.
* 현재신입총액: 213,131,399원
* 금주보수비헌금액: 620,000원
* 현재모금총액: 139,037,159원
☐ 지난주 봉헌금: 1,175,980원

*화산동

사제관 87-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87-9842 사목회장 박영근

- 본당 축성미사를 집전해 주신 주교님께 감사드리오며,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그 동안 수고해 주신 본당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식미사중에 송별식이 있습니다)
 - 주일학교 소품을 즐겁게 마련해주신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 금주전례: 최정순 독서①이봉수 ②허정애.
차주전례: 한병갑 독서①이창욱 ②노시연.
- ☐ 지난주 봉헌금: 110,800원 ☐ 교무금: 60,000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환
수녀원 87-0229

- ※ 성령께미나: 28일(월)~6월2일(토)까지, 저녁미사후. 접수-20일부터. * 사순절 돼지 저금통을 봉헌바랍니다. * 예비자교리 안내: 알림란 참조. * 예수 승천대축일 야외미사: 27일(다음주일)오전10시30분, 장소-성당 뒤 야산공터, 준비물-도시락, 미사도구(미사후 푸리아 옥외행사)
- 성모회, 올드레아: 공식미사후. 2. 푸리아: 오후3시. 3. 청년회: 저녁미사후. 4. 구역형제회 일정: 24일(목) 오후7시30분-19반, 8시-22반, 8시30분-23반. 25일(금) 오후7시30분-양생, 우음, 마음광소. 5. 금주전례: 박연희 복사-강성근, 황의동 봉헌-권광렬부부. 차주전례: 문치구 복사-김광탁, 함문권 봉헌-김광환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458,130원 ☐ 교무금: 206,500원
☐ 감사헌금: 신내철-40,000원

*효자동

본 당 83-3841 사무실 84-0915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신부 김태환
사무실 84-0050 수녀원 84-4804 사목회장 황수석

- ※ 경축 예수 승천대축일! 27일 야외미사 10시30분. * 구역별 점심준비. 1. 성모의 밤 행사: 25일 오후7:30 목주기도. 8시 미사. * 성모님께 드리는 글(편지, 수필, 시 등)을 내주시기 바람. 2. 꼬미서움: 23일 오후3시(교육관). 3. 청년성가대 연습: 매주 토요일 저녁7시30분. 4. 성서교실: 수요일 오후2시 오후7:30 교육관. 5. 예비자교리: 일요일-오전10시30분, 화요일-오전10시30분, 목요일-오후8시, 중교생-(토)오후6시. 6. 사목회회원 개원: 총무-박영춘, 사회봉사부장-정진오, 감사-박정환 수고하시겠습니다. 7. 제대꽃 봉헌: 90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입-605,441원 지출-425,000원 잔금-180,441원 89년 이월금-232,400원 총액-412,841원. 8. 첫영성체-15일부터 오후5시. ☐ 2차헌금: 284,010원
- ☐ 지난주 봉헌금: 756,470원 ☐ 교무금: 694,000원

*효자우저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참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홍두

- 오늘은 나눔의 주일입니다. 수녀원 87-0711
- 사목회: 저녁미사후. 2. 새벽회: 공식미사후. 3. 중교생 소품: 학생미사후 장소-금산사. 4. 전 ME가족모임: 공식미사후 사무실. 5. 첫 영성체교리: 5월22일~6월16일.
 - 반회차 준비 모임: 25(금) 어머니 미사후. 7. 삼거리 공소미사: 25(금) 오후8:00. 유아세례: 26일(토) 오후2:00. 9. 반모임 일정: 23(수) 오전10:00 무궁화, 오후2:00 용성, 24(목)오후2:00 신주12. 25(금)오후2시 현대1-3, 26(토)오전 10:00 신봉.
 - 성모의 밤 행사: 반별성가 경연대회 지정곡 257, 260, 267.
 - 승천 야외미사: 돌곡지, 반별도시락 준비 차주모임-푸리아, 돌담회. ☐ 교무금: 561,000원
- 금주전례: 해설-김인규 독서①박채진 ②강정수
기도①남상용 ②최윤희 ☐ 지난주 봉헌금: 540,440원